

日本戰後社會의 批判的 省察

— 開高健의 『片隅の迷路』를 중심으로 —

柳在淵*

目次

1. 들어가는 말
 2. 「徳島ラジオ商殺人事件」, 그리고 『片隅の迷路』
 3. 합리성의 그늘
 4. 길항하는 근대와 전근대
 5.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며, 항상 현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¹⁾’고 한 바 있다. 어차피 불편이 없는 이상적인 현실이란 것이 도달하기 힘든 영원한 과제라고 한다면 지식인된 입장으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현실을 바꾸어 가려는 실천적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사르트르의 그러한 지식인관은 인민 스스로가 시민사회를 일궈온 전통과 그런 맥락 속에서 지성사를 형성해온 자국 프랑스에 대한 역사과정의 성찰이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를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드레퓌스 사건에서 「나는 고발한다」라는 불후의 명문을 남겼던 에밀 졸라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은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범으로까지 회자되었으며, 이제는 당대의 프랑스 국내문제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불의에 항거하는 성찰적 지식인의 한 전형으로 까지 평가받고²⁾ 있는데 부조리한 현실을 개

* 동신대학교 조교수 일본현대문학

1) 지승호(2003), 『다시 아웃사이드를 위하여』, 아웃사이드, p.48

2)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아르망 이스라엘의 『다시 읽는 드레퓌스 사건』이 국내에 번역된 바 있는데 윤희인의 글에서 이은진은 드레퓌스 사건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 언급해놓고 있다.

혁하려는데 붓과 행동을 달리하지 않았던 샤르트르의 삶은 바로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의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꾸어졌을 것이다.

반드시 샤르트르나 졸라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계의 지성사에서 문학자로서 붓과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한 예는 이제 드물지 않는 현상이 되었고 일본의 경우, 전후(戰後)문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실례를 적지 않게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재판과 관련된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부락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든 반 인권적 재판에 항거해서 싸웠던 노마 히로시(野間宏), 정치적 상황이 얽힌 국철(國鐵)노조와 일반기업의 노조와해를 위한 치밀한 공작에 의한 범죄로 널리 알려진 마쓰가와(松川)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끝내 피의자들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히로쓰 가즈오(廣津和郎), 정경유착에 의한 지방정치의 부패사슬을 고발한 『ノリソダ騒動記』의 스기우라 민페이(杉浦明平),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이코 다케시(開高健, 이하 가이코)의 『片隅の迷路』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片隅の迷路』의 경우는 실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나 과정을 변형시켜 추리소설과 같은 요소의 픽션 형태를 가미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³⁾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추이를 사실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설 속에 묘사된 사건 자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작가는 ‘일본의 재판이 지니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사실관계 이면에 숨어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본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접근하려는 의도’⁴⁾로 이 작품을 썼고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과 시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르포 형식의 다른 작품과 동일한 반열에 놓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작가가 『片隅の迷路』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일본의 부조리한 현실은 무엇이며, 그 현실을 드러내는데 이와 같이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소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⁵⁾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아르망 이스라엘/ 이은진(2003), 『다시 읽는 드레퓌스 사건』, 자인 pp.5~13

- 3) 소설과 프라이머시에 대한 죄담회에서 작가는 이 작품의 창작동기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日辯連(日本辯護士連合會)에 갔을 때 이 도쿠시마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쓰다 변호사를 만나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쿠시마까지 취재를 하러 가서 와타나베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는 사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담화) 開高健(1994), 『ALL WAYS I』, 角川文庫, p.36

- 4) 그런 일은 메스컴이 발달한 도쿄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방, 즉 일본의 구석진 곳에서는 더러 일어나지요. 일본 재판의 특수성에 대해서 써보고 싶었습니다만 그게 성공했는지는...

開高健, 위의 책 p.36

- 5) 기타무라 미노리(北村美憲)는 『片隅の迷路』가 생성해내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다. “춘구석(片隅)의 미로라는데 의미가 있다 작가는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소설의 무대로 되어있는 지방도시가 일본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지방의 하나라면 피해자

2. 「徳島ラジオ商殺人事件」, 그리고 『片隅の迷路』

『片隅の迷路』는 석간 『毎日新聞』에 1961년 5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199회에 걸쳐 연재된 장편소설이자 작가의 유일한 신문연재소설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시코쿠(四國)의 도쿠시마시(徳島市)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이 소재이다.

그러면 먼저 실제 사건의 발생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⁶⁾.

1953년 11월 5일 새벽 도쿠시마시에서 라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미에다 가메사부료(三枝龜三郎)가 자택에서 살해된다 일본 현대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되는 이른바 「徳島ラジオ商殺人事件」의 발단이다. 현장에는 전등을 연결하는 전기선과 전화선이 절단되어 있었고, 시트 위에는 범인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회중전등과 비수(匕首)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두 명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증언에 따라 폭력조직의 조직원 두 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게 된다. 그러나 용의자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데다가 그 중 한 명이 마약중독자로 밝혀지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결국 경찰은 용의자들을 모두 석방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다.

해를 넘긴 사건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가게 점원인 두 소년만 계속해서 참고인으로 출두시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이해 7월 8일 그 두 소년을 별 건으로 체포, 각각 44일과 27일 구류에 처한다. 소년 중 한 명은 16세, 다른 한 명은 17세였고 이 두 소년의 증언에 의해 검찰은 피해자와 한 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후처 후지 시게코(富士茂子, 이하 후지 시게코)의 범행에 의한 사건으로 하는 공소장을 꾸미게 된다. 그 결과 재판부는 후지 시게코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그 후 1심에 불복한 피고 측이 다카마쓰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은 기각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당사자인 후지 시게코가 재판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품고 58년 5월 상고를 포기, 1심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후지 시게코는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966년 11월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피고가 무죄를 호소한 것에 귀를 기울여 재판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무죄를 확신한 사람이 있었다. 변호사 쓰다 다카조(津田騰三)와 통신사 기자 사이토 시게오(齊藤茂男) 그리고 평범한 시민 와타나베 마스오(渡辺倍夫) 세 사람이다 이들에 의해 1978년 재심이 청구되고 80년 12월 재심이 결정, 1985년 7월 9일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의 당사자인 후지 시게코는 1979년 이미 사망해버렸고 일본 재판 사상 최초의 사후(死後)재판으로 기록된 사건이 되었다.

의 후처이자 범인으로 조작되어버린 주인공 요코의 입장은 바로 당신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말을 작자는 하고 싶었던 것일까?」 기타무라 미노리(1962), 「『片隅の迷路』, 『新日本文學』 5月号 p.101
6) 이 사건에 대한 개요는 「講談社編集部(1992), 『昭和2万日の全記録』第10巻, 講談社, p.120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

실제 사건과 소설을 두고볼 때, 사건에 대한 시간의 경과와, 『片隅の迷路』가 쓰여진 시점인 1961년이 주목된다. 1961년은 살인범의 누명을 쓴 후지 시게코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1심의 확정판결 대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1심이 확정되기까지의 실제 재판 진행과정에 개입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결이 되어버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과, 재판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은 사건을 둘러싼 내용은 비교적 간단히 다루고 있고, 주인공인 요코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그녀의 무죄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 주된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片隅の迷路』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프라시버시에 대한 배려에서인지 피해자의 가게 이름과 업종이며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바꾸어 놓고 있다. 그래서 『片隅の迷路』에서는 라디오상이 농기구상으로 되어있고, 물론 등장인물들의 이름 또한 실제 사건 속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있다⁷⁾.

소설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주인공인 피해자의 부인인 요코(洋子)와 장녀 류코(龍子)를 둘러싼 일상이 묘사되다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야나하라(柳原)와 사카네(坂根) 두 소년은 검찰에 구속된 후 요코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급반전, 그리고 요코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요코의 조카 하마다 류지(浜田流二)와 이마이 시게오(今井茂雄)변호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처음부터 요코가 무죄라는 입장에서 소설을 전개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片隅の迷路』를 연재하던 시점은 주인공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던 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기에는 우선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정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유죄 판결에 대한 가장 핵심적 증인인 사카네의 위증 번복과 재판제도와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대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해버린 요코의 행동은 재판부의 재심 불가 판정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일관되게 요코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片隅の迷路』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의 규명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경직된 제도와 권력의 집요하고도 음험한 속성, 그리고 여전히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를 틀고 있는 전근대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7) 『片隅の迷路』의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작가인 가이코의 실제 주변인물들의 이름이 겹치는 것들이 많은 점이 매우 특이해 보인다. 가령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는 주인공 요코는 가이코의 부인인 마키 요코(牧羊子)의 이름과 동일하고 요코의 딸 미치코(道子)는 작가의 딸 가이코 미치코(開高道子)와 같으며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방대학교수 다니자와(谷澤)는 작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간사이대학(關西大學) 교수(教授)인 다니자와 에이치(谷澤永一)와 겹친다. 이것은 작가의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상 평범한 시민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합리성의 그늘

『片隅の迷路』에서는 사건 직후 이미 두 명의 목격자가 확보되었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사건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듯이 보인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문의 사회면을 애독하는 사람인 제삼자의 눈에는 흔해빠지고 평범한 그래서 전혀 특별할 것도 없는 사건으로 보였다.’(『片隅の迷路』⁸⁾, 157쪽)는 서술처럼 사건은 쉽사리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용의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면서 미궁으로 빠져 들어버린다. 그리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합리적인 제도라는 법을 이용해 자신들이 짜놓은 테두리 속에 사건을 끼워 맞추면서 수사 방향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진행되게 된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거꾸로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름 아닌 사법제도 자체가 범죄의 수단이 되고 집행을 하는 권력기관이 행위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매스컴조차도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한 몫을 거들게 된다.

두 개의 신문사의 최종 목적이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자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인지 는 의문이다. 신문은 일단 팔려야 한다. 신문을 팔기 위해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도록 강요받았다.(187쪽)

두 개의 신문사란 도쿠시마에 있는 지방지로 한 쪽은 범인 내부 설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은 외부 설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상업성을 의식한 선정적 기사를 쓰는 데 열을 올릴 뿐이다. 신문들은 심지어 범행현장인 안방에서 추리소설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후처의 입장에 있는 요코의 심리적인 상태를 제멋대로 유추하는 기사를 신기도 한다. 물론 매스컴의 이러한 행위들은 검찰의 수사에 직 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법적 근거와 그들의 판단을 전면에 내세운 권력이 지니는 권위와 매스컴의 선동은 좁은 지역사회의 일반인들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결국은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라구!’(234쪽)와 같은 인과관계의 전도에 의한 막연한 추측이 사건의 실체인 것처럼 오인되어버린다. 그리고 몽매한 주민들은 스스로가 추측을 확신으로 굳혀가게 된다.

8) 『片隅の迷路』의 저본으로는 開高健(1992), 『開高健全集』·卷4, 新潮社 를 참조로 했다. 아울러 본문 한글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이하 모두 같음.

요코에게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부실한 재판이었음에도 검찰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는데,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결에 만족해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의 표정을 바라보는 도쿠조의 딸 류코의 절망감은 제도와 권력에 대한 한 개인의 무력감을 반영하고 있다.

류코(龍子)는 엷드린 채 옆 눈으로 살짝 쳐다보았다. 마흔 대여섯 정도의 여자였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법정에 나오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것 같았지만 왠지 초라해 보이고 지친 모습이었다. 시장의 생선가게나 야채가게에서 늘 만져보기만 하는 그런 여자였다. 생활에는 여유가 없으며 몸에는 항상 부엌냄새가 배어있고, 아이들에게 껍떡 소리를 지르겠지 아무리 머리를 다듬어도 눈을 보면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로 보인다. 미장원에서 막 나올 때조차도 머리결이 이미 흐트러져 있을 것이다. 사십 년 동안 닳고닳은 얼굴에, 머리 속에는 수많은 서랍을 만들어, 한 개의 서랍에 한 개씩 거짓말을 담아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거짓말을 꺼내 쓴다. 남편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쉽게 속아넘어간다. 고통이든 환희든 한꺼번에 끝장을 내는 법이 없이 드롭스를 빨아먹듯이 조금 씩 조금 씩 녹여먹는다. (중략)

신문과 검사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신문과 검사의 「정의」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이렇듯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단 말인가.(288쪽)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결국 검찰의 날조된 죄명에 의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정에 서있는 요코와 그 재판정의 방청석에 앉아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그/그녀들은 사실은 언제든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처지가 아닐까.⁹⁾ 사실 요코의 경우도 자신의 검찰의 음험한 울가미에 걸려들기 전 만 하더라도 방청석의 여자와 같이 평범한 서민의 한 아낙네에 불과했다. 그리고 요코 또한 법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며 매스컴이란 진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근대적 수단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듯 그/그녀들이 근대적 사회의 틀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권력과 제도에 아무런 성찰이나 비판적 인식이 없이 굴복해버리고, 대중매체의 속성에 기만당하는 것은 어쩌면 근대의 합

9) 히라노 히데히사(平野榮久)는 『片隅の迷路』의 창작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마쓰카와사건(松川事件)을 오랫동안 아무런 가식도 없이 추적했던 히로쓰 가즈오(廣津和郎)에 대한 인격적인 존경심이 창작의욕을 낳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마쓰카와 사건은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조작사건이지만 가이코는 여기에서 언제 서민에게 덮칠지도 모르는 권력의 끄적함을 묘사하려고 한 것이다.” 平野榮久(1991), 『開高健, 闇をはせる光茫』, オリジン, p.134

즉, 가이코는 히로쓰의 마쓰카와 사건에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투쟁(1954년 4월부터 『中央公論』에 연재한 「松川裁判批判」에서 1963년 피의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때까지)을 통해, 권력 측과 그 맞은 편에 있는 시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같은 문학자로서의 성찰적 인식을 획득했고 그런 인식에 대한 실천적 성과가 『片隅の迷路』인 셈이다. 그리고 이 두 문학자의 집점은 시민들이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언제든 권력은 시민을 억압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근대사회에서의 교훈일 것이다.

리성에 대한 과신¹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런 합법을 가장한 폭력에 대항할 또 다른 합법으로서의 변호제도는 과연 어떤가. 작자가 이 소설을 일본의 재판제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다루어보고 싶다고 했듯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재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을 하는 쪽이든 재판을 받는 쪽이든, 또는 변호하는 인간이든 모두 무엇을 호소하고 있을까? '이치'일까? 그렇지 않다. '상식'도 아니다. 이치도 상식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 '눈물'이다. 특히 '명변호'라는 것을 읽어보면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리타분하고 한문투와 신파조가 섞인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된 내용하며, 육법전서를 해괴망측한 투로 장식해놓은 문장이 그것이다.(291 쪽)

이 소설의 소재가 된 「徳島ラジオ商殺人事件」의 개요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검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날조된 이 사건은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피고 요코에게 중형이 내려진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 요코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동안의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진행,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 피의자가 된 요코를 둘러싼 여러 정황 등 이성적인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요코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의 주장은 간단히 묵살되어버린다. 작가의 비판처럼 변호인의 변론은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고 측에 유리하도록 재판장의 감정적 판단을 유도해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메이지 이래 일본사회의 정의와 질서의 근거를 이룬 재판제도가 왜 그렇듯 비합리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까?

일본에서는 배심원이라는 게 없다. 왜일까? 「선량한 시민」과 「이치」를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위정자가 그렇다. 혹은 위정자에게 간단히 말려드는 「선량한 시민」을 위정자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수한 어리석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에 따를 것. 알아둘 일」과 같은 문구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메이지 이래 누구에게 호소해왔을까? 재판장이다. 전문가에게 호소하기는 한 것이다. 호소하기는 했지만 평범한 「선량한 시민」에게는 호소하지 않았다. 「상식」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의 「상식」에 작용하는 「이치」게임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말

10)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2003)는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에 의해 대규모 조선인 학살이 그토록 거리낌없이 행해진 것에 대해 “일본인은 국가가 그 권위를 부여한 정보를 신뢰하는 정신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야마다 쇼지/정선태 『가네코 후미코』 산처럼 p.212), 적어도 『片隅の迷路』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당시인 전후의 일본사회에서도 그런 정신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자면 재판장을 「신」으로 본 것이다. 이 온통 엉터리와 모순 투성이의 약하다 약한 한 개인을 말이다.(290쪽)

‘선량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서구의 재판 형식과는 달리, 신이 아니면서 신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일본의 사법제도가 합리성의 그늘과 균열을 형성해온 근원인 것이다. 결코 전지전능할 수 없는 한 개인인 재판장의 이성적 판단을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일본의 재판제도의 현실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사법제도가 시민의 시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데서 오는 필연적인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작가는 여기에서 단순한 재판제도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근대의 허약 체질과 한계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서구 근대를 형성하고 지탱해온 ‘계몽적 이성’과 ‘도구적 이성’이라는 두 개의 축이었지만 서구의 근대적 성과를 급히 도입해 자기 증식하는데 급급했던 일본은 후자인 도구적 이성 쪽이 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은 후발 근대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골격을 이루는 개 개인의 시민에 대한 인권적 개념과 시민들간의 신뢰감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회와 인간 혹은 인간과 인간 관계가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사법제도와 같은 국가권력의 행사도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에 의한 이른바 ‘신의 권위’에 의해 운영되게 된다. 배심원제도가 시민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을 신뢰하고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재판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에 의해 선택된 인간의 판단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인간이나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나 계기도 마련하지도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제도가 시민에 대한 억압적 기능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법이나 언론의 그 근본적인 취지나 역할은 보다 시민의 권리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판적 인식과 성찰적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 합리성에 바탕을 둔 그런 제도들은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만큼 짧지 않은 근대의 역사에서 수없이 입증되어 왔고 현재도 여전히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가이코는 『片隅の迷路』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균열에 의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권력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유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균열은 합리성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적 인식이 결여된 민중들의 과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4. 길항하는 근대와 전근대

가이코는 『片隅の迷路』의 집필동기를 밝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은 매스컴이 발달한 도쿄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방, 즉 일본의 구석진 곳에서는 더러 일어나지요'¹¹⁾. 라는 전제를 달고 있으며 『片隅の迷路』에서는 전후의 실증적인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구석진 곳'을 제시하고 있다.

왜 이런 사건은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고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마쓰카와(松川) 사건¹²⁾도 그렇고, 스고(菅生)사건¹³⁾도 그렇다. 아카이(八海)사건¹⁴⁾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후쿠시마현에서, 오이타현에서, 아미구치현에서 일어났지 않은가. 동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어진다.(319쪽)

11) 주4) 참조

12) 1949년 8월 17일 오전 3시 9분 도호쿠 혼센 東北本線 아오모리 발 우에노 행 여객열차가 후쿠시마현 가네야가와역(金谷川驛)에서 마쓰카와역으로 가는 커브 선로에서 기관차와 객차 세 량이 탈선, 전복 기관사 한 명과 조수 두 명이 사망. 경찰은 9월 10일 19세 청년 아카마 가쓰미(赤間勝美)가 별 건인 상해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의 자백에 근거해서 국철노조원 10명과 도시바 마쓰카와 공장 노조원 10명을 체포했다 사건은 열차 사고보다도 노조 파괴를 위한 권력 측의 공작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결국 피고들은 최고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講談社編輯部 編(1989), 『昭和2万日の全記録』·卷8, 講談社, pp.303~304

13) 1952년 6월 2일 오전 0시 30분경 구마모토현 경계부근에 있는 오이타현 나오이리군(直入郡)스고무라(菅生村, 현재의 竹田市)의 순시주재소가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농부 고토 히데아키(後藤秀名)와 승려 사카모토 히사오(坂本久夫) 그리고 공범으로 보이는 고토 마모루(後藤守) 등 세 명을 체포했다. 당시 이 지역은 미군기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경찰이 프락치를 사용, 농민조직으로 하여금 폭파를 유도한 것이 재판 과정을 통해 판명되었다.

講談社編輯部 編(1989), 『昭和2万日の全記録』·卷9, 講談社, p.215. 더 상세한 내용은 井出孫六(1991), 『ルポルタージュ 戦後史』·上, 岩波書店, pp.195~230

14) 1951년 1월 24일 밤 아미구치현 구모계군 오고무라(熊毛郡 麻郷村) 아카이에서 노부부가 참살되고 금품이 털린 사고가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사람이 용건이 있어 노부부를 방문했는데 닭장 안에 목을 댄 사체가 발견되었다. 현장의 정황은 얼핏보아서는 외부 침입자는 없고, 노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도끼로 남편을 살해하고 닭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범행 조작 설이 탄로 났고 26일 같은 마을에 사는 요시오카 아키라(吉岡晃)를 체포, 그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은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생각되었는데 당초부터 공범 설을 믿고 있던 수사당국은 요시오카를 집요하게 추궁, 그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해서 요시오카의 주변인물 다섯 명을 체포했다. 재판은 단독범행과 공동범행을 둘러싸고 사형과 무죄를 번복하면서 17년에 걸친 길고 힘겨운 역정이 되었다. 결국 공범들은 무죄로 풀려났고 검찰과 경찰의 억압수사의 한 전형이 되었다. 이 사건은 『眞晝の暗黒』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사건의 성격이나 결과로 보아 앞의 두 사건 보다는 아카이 사건이 『片隅の迷路』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講談社編輯部 編(1989), 『昭和2万日の全記録』·卷9, 講談社, pp.124~125

위의 사건들은 모두 전후 혼란기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것이거나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片隅の迷路』의 소재가 된 「徳島ラジオ商殺人事件」도 사건의 발단이나 추이는 위의 것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일본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주변부라는 점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본 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에 의한 문제제기에 의해 중앙의 개입을 유도해냈으며,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볼 때 결과적으로 지방의 소도읍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로 상징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의 유린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片隅の迷路』에서의 片隅, 즉 구석진 곳을 중앙대 지방이라는 공간적 의미에서의 변방만이 갖는 특수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한 근대화의 성취와 전후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일본사회가 여전히 전근대의 전통적 사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특수성을 동시에 응시하고 있다.

『片隅の迷路』에서는 주인공 요코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심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사카네라는 인물이다. 그는 사건 당시 도쿠조의 농기구상 점원이었고 요코가 살인범이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1심 확정판결 후 요코의 조카인 하마다 류지는 1심 재판의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일일이 설득, 위증의 자백을 받아내지만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사카네만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순박한 시골 소년이었던 사카네가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에 당당하게 맞서기에는 너무 어리고 무지¹⁵⁾했으며 그로 인해 입은 충격과 두려움이 그를 침묵하게 하는 크나큰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카네로부터 위증을 자백 받아내기 위해 류지는 물론 변호사, 기자, 인권관계 위원회의 사람들이 갖은 설득을 다하지만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완강하던 사카네가 어느 날 너무 간단하게 자신의 위증을 고백해버린다. 누구의 설득도, 그렇다고 양심의 가책도 아닌 무당의 점괘가 바로 그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다.

金光大明神은 청년이 살고 있는 동네와 인근부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환자가 생기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 신사에 들르거나 무녀인 노파의 집에 빌러 가는 습관이 있었다. 사카네 청년의 부친은 근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어느 날 이 노파를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노파가 청년 집에 와서 푸닥거리를 해보니 여우신이 내렸다. 곧 신령님이 붙은 것이다. 노파는 격한 어조로 말을 전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거짓말을 하면 큰 재앙이 닥칠텐데 이

15) 검찰이 사카네로부터 억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에게 뒷췌운 죄명이 ‘銃砲刀劍 不法所持罪’이다. 무지하고 순박한 그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죄명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하는 미시적 폭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집에 혹시 거짓말을 하고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에 놀란 청년의 부친이 되물었다. 큰 재앙이라는 게 뭐냐고, 노파가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집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갈 것이며 끝내는 모두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사카네 청년은 부친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서야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59쪽)

공간적 의미에서 중심부를 이루는 근대화된 대도시와 개발의 그늘에 놓인 주변부의 지방이 서로 혼재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질적인 요소가 심하게 마찰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중심부의 근대성과 중심부의 그늘에 가린 주변의 전근대성의 길항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카네가 자신의 위증을 자백하게 된 계기는 한 편의 코미디 그 이상도 그 이하라고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의외의 계기로 그의 자백을 받아낸 류지는 기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절망해버린다. 류지는 사카네의 위증으로 인해 요코와 요코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갖은 고통과 완전히 파탄에 이른 가게 등을 이야기하며 자백을 설득하지만 막무가내이다. 그에게 양심 따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다. 내가 아닌 타자의 '개인'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고 양심이며, 근대 시민의식의 존립기반이 되는 것이다. 사카네에게 상식이, 이치가, 이성적 판단이, 양심조차도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 옹호와 과장인 오카모토의 입을 빌어 “金光神의 단 한 마디에 태도가 돌변해버리다니. 金光神에게 말이야. 여우의 계시라느군. 이 원자폭탄 시대에 여우가 계시를 했다”(456쪽)라는 탄식을 뱉어내는 것은 전후 근대의 지난한 역정을 예감한 작가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따라서 이것은 전후 민주주의라는 현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편에는 여전히 전근대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사회¹⁶⁾에 대한 작가의 쓰라린 성찰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片隅の迷路』는 추리소설의 기법을 가미한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적 재미가 작가의 다른 소설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타무라 미노리의 지적대로 「徳島ラ

16) 사쿠라이 테츠오(櫻井哲夫)는 『可能性としての戦後』에서 『片隅の迷路』와 비슷한 시기인 1952년 시즈오카현 후지군에서 일어났던 무라하치부(村八分)사건의 예를 들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 70여 년이 흐른 후에도 일본의 농촌 사회에 완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전근대적 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부정선거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마을 사람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후 민주주의의 의한 시민의식과 전통적인 정서에 기반한 온정주의가 충돌했을 때 지방에서는 여전히 후자 쪽으로 힘이 더 기울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櫻井哲夫(1997), 『可能性としての戦後』, 講談社, pp110 ~130

『ジョ商殺人事件』도 하나의 사건으로써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살인사건 그 자체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살인사건을 다루고 이용하는 수사와 재판, 즉 국가권력의 가장 직접적인 실행수단¹⁷⁾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후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작가는 『片隅の迷路』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도대체 이런 일은 일본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요코처럼 사회의 실력자도, 유명인도 아닌, 마치 수는 방울처럼 산산이 흩어져 그저 자기 생활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시민이 소송을 할 조직력도 돈도 없이 그저 실행을 언도 받는 대로 굴복해버리는 사건이 어느 정도나 될까? 도대체 그들 또 그녀들은 목소리를 몸과 벽 속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507쪽)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권력의 그물 망에 걸려든 요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그녀의 문제이며, 그/그녀들이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적 제도를 그대로 신뢰하고 비판적인 성찰이 없이 그러한 제도에 자신을 의탁해버릴 때, 그것들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폭력적 도구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片隅の迷路』는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또한 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권력 측의 계략만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동조나 혹은 무지 그리고 역으로 비합리성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의한 폭력을 재생산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실의 지배적 권력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과 반성하는 사유의 긴장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아르망 이스라엘/ 이은진(2003), 『다시 읽는 드레퓀스사건』, 자인 pp.5~13
- 야마다 쇼지/정선태, 『가네코 후미코』, 산치림, p.212
- 지승호(2003), 『다시 아웃사이더를 위하여』, 아웃사이더, p.48
- 井出孫六(1991), 『ルポルタージュ 戦後史』· 上, 岩波書店, pp.195~230
- 開高健(1992), 『開高健全集』· 卷4, 新潮社
- ----- (1994), 『ALL WAYS I』, 角川文庫, p.36
- 北村美憲(1962), 『『片隅の迷路』』, 『新日本文學』, 5月号, p.101
- 講談社編輯部 編(1989), 『昭和2万日の全記録』· 卷8, 講談社, pp.303~304

17) 北村美憲(1962) 『『片隅の迷路』』, 『新日本文學』, 5月号, p.101

- ・ ----- (1991), 『昭和2万日の全記録』・ 卷9, 講談社, p.215
- ・ ----- (1992), 『昭和2万日の全記録』・ 卷10, 講談社, p.120
- ・ 櫻井哲夫(1997), 『可能性としての戦後』, 講談私, pp110~130
- ・ 平野榮久(1991), 『開高健 闇をはせる光茫』, オリジン, p.134

要 旨

開高健の書いた『片隅の迷路』は1953年11月徳島で起きた、いわゆる「徳島ラジオ商殺害事件」を素材にした作品である。この事件は検察として象徴される國家權力によって犯された反人権的犯罪であり、日本司法制度の虚点と權力の俗性とを克明に表わしたものである。

作家がこの作品を書いた時点はすでに被告の洋子が1審の確定判決をうけ監獄に收監されているときであるが、おもに、小説は殺人事件その自体の眞實を迫及するのではなく、検察側が洋子を犯人としてでっちあげる過程と彼女の無罪を証明するための険しい闘いを描いている。そして作家は、合理性に基づいている近代制度の非合理性、すなわち、人民による人民のための制度であるべきことが、むしろ權力側に立って人民を抑壓しているのを鋭く批判している。

ちなみに、作家は、民主市民として自分の權利を守るために人民のほうも權力についての批判的認識と省察をも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も力説している。また作家は、依然として前近代的意識が残っている戦後日本社會の特殊性についても視線を注いでいるが、それこそ近代の市民社會へと行く道を妨げるものであることを大事な教訓として持ちあげている。

したがって『片隅の迷路』は開高健の戦後日本社會にたいする批判的省察であり、またただしい市民社會に向けてのくるしい摸索でもある。

キーワード：開高健、『片隅の迷路』、合理性、近代と前近代、市民社會、戦後民主主義

투 고 : 2003. 11. 30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동신대학교

電 話 : 061-330-3643

E-mail : ryujaeyeon@hotmail.com